

메이저 국제대회, 태권도원서 열린다

9월 세계태권도그랑프리 · 11월 2026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 등 잇따라 개최

올해 11월 파라 태권도에 있어 패럴림픽 다음으로 높은 등급의 국제 대회인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G4)'가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와 함께 9월에는 '세계파라태권도그랑프리(G6)'와 '세계태권도그랑프리(G6)'가 예정되어 있는 등 메이저급 대회가 태권도원에서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패럴림픽 남녀 5개 체급으로 진행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종현)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도시 협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대회 개최가 공식화되었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태권도원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하며 태권도 성지이자 핵심 허브로서의 명성을 더 높게 되었다.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도시 협약식이 지난달 26일에 열렸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무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회 유치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 기반 마련에 큰 보탬이 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그동안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수의 국제 대회와 세미나 등을 태권도원에서 개최하며, 국제적인 스

포츠 이벤트 운영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해 왔고 이번 대회 유치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발판이 되었다.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와 함께 법정 기념일인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는 G6 등급의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파라태권도그랑프리'가 예정되어

있고 9월 5일부터 3일간은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태권도그랑프리(G6 등급)'가 연이어 개최된다.

9월 4일 '세계파라태권도그랑프리'에는 체급별 상위 랭크 12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5일부터 열리는 '세계태권도그랑프리'에는 체급별 상위 랭크 32명이 참가하게 된다. 다만 '세계태권도그랑프리'는 작년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에 출전해 체급별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들도 참가한다.

김종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성공적인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라며 "9월에 있을 G6 등급의 2개 대회와 11월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까지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열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는 오는 6월 파라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 등이 참가하는 '세계 파라태권도 합동캠프'를 예정하고 있는 등 태권도원이 세계 파라 태권도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소속 오정빈(자유형 55kg)과 이한빛(자유형 65kg) 선수가 2026년도 레슬링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소속 오정빈·이한빛, 태극마크 달다

오정빈 · 이한빛, 최종 선발대회서 우승 아시아 ·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 획득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소속 오정빈(자유형 55kg)과 이한빛(자유형 65kg) 선수가 2026년도 레슬링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두 선수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번 우승으로 오정빈, 이한빛 선수는 오는 4월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10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두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계기로 훈련에 매진해 국제 무대에서 도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정환기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감독은 "하루도 쉬지 않고 선수들

과 지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 대회에서도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고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 성과가 2024년 창단한 근대5종팀 등 직장 운동경기부 전체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종목별 선수단과 연계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교통·수송 협력체계 구축

전북도, 전주시 등과 협약 체결 국제행사 수준 서비스 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주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위한 대중교통·수송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송 지원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번 협약은 올림픽 유치의 핵심 요소인 교통·수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회가 확정될 경우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국내외 관람객에게 안전적이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도내 주요 운송단체가 참여했다. 각 기관·단체는 대회 기간 중 차량 우선 배정과 증차, 특별 수송 대책 수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장·선수촌·숙박시설·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노선 체계 정비와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대중교통·수송분야 업무협약에 김관영 도지사(2)와 윤동욱 전주부시장, 황의중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형택 전북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공선 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와 운수종사자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병행해 국제행사에 걸맞은 수송 서비스 품질도 강화한다.

특히 실시간 교통 정보 공유와 비상 수송체계 가동을 포함한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회 운영의 안정성

을 높일 방침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림픽 골든타임 IT' 교통 분야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숙박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대중교통

과 수송체계는 올림픽의 첫 인상이자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도내 교통·수송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송 모델을 구축하고, 전북 전주가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순창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성료... 170개팀 참가

순창군에서 열린 제11회 순창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대회에는 170개 팀이 참가해 대회 사상 가장 많은 팀 수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간 열렸으며, 순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관했다.

경기는 팔달다용도경기장과 공설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생활체육운동장 등 관내 12개 구장에서 분산 개최됐다.

대회 새싹리그에서는 순천 남산 유소년 야구단이 정상에 올랐다.

꿈나무 청룡리그는 김포시 유소년 야구단 꿈나무 백호리그는 안산시 유소년 야구단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꿈나무 현무리그에서는 무안군 유소년 야구단이, 유소년 청룡리그는 세종시 유소년 야구단이 우승했다.

유소년 백호리그는 중앙 이글스 유소년 야구단이, 주니어리그는 강남도곡 유소년 야구단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